

社會開發 分野의 國際開發協力 序說⁽¹⁾

王 仁 權

본 소고는 후발개도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를 경제개발, 정치개발, 문화개발 그리고 사회개발의 네 가지 범주의 것으로 보고 그 중 사회개발 분야만을 서설적으로 살핀 것이다. 후발개도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의의를 총론적으로 살펴본 이후의 후속적 또는 추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경제개발, 정치개발, 그리고 문화개발의 각 분야가 구질적 또는 개별적으로 고찰된다면 후발개도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통합적인 논고 또는 음미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개발분야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특히 후발개도국에 있어서도 인지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경우 경제개발분야에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비록 이상의 네 가지 개발분야는 필요조건이며 그 중 경제개발분야가 아마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더라도 사회개발이 없는 경제개발은 가능하지 않다는 명제를 되새김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머리말

‘한국 < 아세아 < 세계’로 국경 없는 국제화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 그 중에서도 ‘最貧國’(LLDCs)을 포함하는 다수자적인 ‘後發 開發途上國’(LCDCs)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또는 원조(IDC)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베풀어져 왔으며 오늘날도 중요한 국제적인 과제라 되어 있다. 명제로서 볼 때에 발전하였거나 힘있는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공여자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 크나큰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나라도 ‘經濟開發協力機構’(OECD)에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을 뒤늦게나마 전개하고 있다.⁽²⁾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범사회체계분야로 조준될 때, 주로 (1) 사회체계, (2) 가치체계 그리고 (3) 기술체계의 범주에 걸치게 된다. 경제개발, 정치개발, 문화개발 그리고 사회개발이 범 사회체계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실질이 되는 셈이므로 사회학은 學

(1) 본고 작성에 있어서 국제경제학적인 틀 안에서 일본의 기술개발 이전과 개발협력의 권위자이자 필자의 지기인 ‘주오 다이가꾸’의 齊藤 優(사이토 마사루)교수의 직접·간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2) ‘韓國 國際 協力團’(KOICA)이 기능한지는 여러 해가 되는데 적은 규모에서 점차 발전을 보이고 있다.

際的 接近(IDA)[왕인근(1995, pp. 82-104)]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社會開發(SD)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사회개발적인 국제 개발협력에 관하여 서론적으로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개발은 농촌사회학이 주로 대상으로 하는 농촌사회개발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보다 총체적이며 상위의 개념이다. '序說'이라는 꼭지를 감히 붙인 것은 상당 정도로 총체적이며 간명하게 그리고 개설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촌사회개발의 추출이 가능치 않은 것은 아니나 농촌-도시 통합적인 시각을 채택한 것인데,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연구분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의 사회개발은 '汎社會開發' (Societal Development)은 아니고 그의 하위 개념이자 실체로서의 사회개발이다. 그리고 주 또는 정보원은 가급적으로 간추리는 형태를 취한다.

2. 社會開發의 基本概念

한 마디로 말한다면 '社會開發'이란 특정사회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생활조건 또는 혁신을 개발하는 것이 된다. 주체는 정부, 공공단체인데 민영화의 진행과 더불어 민간부문도 참여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회개발의 실질 또는 내용은 사회적 후생의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구조조건의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1)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 보건의료, 음료수, 교육, 인재개발, 사회적 안전, 고용조건 개선 그리고 가족계획 등의 직접적인 사회적 후생의 향상과 (2) 운수, 통신 등의 전달매체개발, 국토개발, 지역개발, 상하수도 설비, 교육 및 연수 기관, 도시개발·재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후생기반정비가 된다고 보게 된다. (1)과 (2)의 양 범주를 포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개발의 대상인데 좁은 뜻에서 (1)만을 보면 선진 주요국에서는 (1)을 위하여 평균적으로 GNP의 20-30%를 할당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된다[Morrice (1988)].

직접적인 사회적 후생 향상의 주된 목적은 (1) 사회적 발전력의 육성과 사회적 안전 및 안정, (2) 공정한 사회적 자원의 이용과 상위계층자와 하위계층자들 사이의 격차 축소, (3) 생활의 사회적 조건의 개선과 다양한 선택, 그리고 인간적 존엄성의 확보 등이 된다. 사회개발은 주민의 생활 개선 또는 '삶의 질'(QOL)과 주민 스스로의 자주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는 개발주체에 크게 좌우된다. 행정상의 필요와 주민의 필

요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개발주체는 정부, 민간기업, 제3부문, 주민 등 각각 및 그 조합으로 구성된다. 사회개발론은 그 전개과정에서 單一 學問分科(discipline)에 의하여 각각의 분과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예컨대 경제학에서는 후생경제학에 의해, 사회학에서는 社會計劃論(SP)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오고 있으나 오늘날은 學際性(inter-disciplinarity)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南北協力(NSC)에서는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基本的 人間必要’(Basic Human Needs = BHN)라고 하여 우선적으로 원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가 사회개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학의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개발의 전개과정을 보면, 인간복지의 향상 또는 역으로 사회적 장애를 검토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 인간 중심 개발적인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시 Hobhouse (1924)는 사회개발 또는 발전이란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의 인간의 발전이며, 사회적 진보는 인간의 의지에 크게 의존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개발은 국내적인 과제에 머물러 있었다. 국제적 사회개발론이 주요한 과제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로 특히 남북협력의 세계의 주요문제가 된 연후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1950년의 ‘콜롬보 플랜’으로부터이다. 국제개발을 10여년 집행하고 난 후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었다. 즉, 경제개발협력에 주력했던 상황에서 사회개발의 뒤처짐이 충격을 주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양 개발의 균형적인 전개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United Nations-Socio-Economics Bureau).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인간의 발전과 그들의 생활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게 되어 여성,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용역의 국제개발협력상 배려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United Nations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UNCRD).

근년의 인구 폭발, 급격한 도시화, 사회문제의 지구화 또는 국제화 등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 사회개발은 1980년경부터 분명한 세 가지의 경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게 되었다. 제1은 사회개발의 분권화, 즉 국가행정으로부터 지방행정이나 제3부문인 민간으로의 분권화, 제2는 사회개발의 민영화 경향, 그리고 제3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결합 내지 연계의 강화이다. 이상에 더할 것은 사회개발의 국제화가 될 것이다.

3. 國際開發協力の 基本概念

국제개발협력(IDC)이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최빈국(LLDCs)을 포함하는 후발개발도상국(LCDCs)에 대한 것과 동의어의 느낌을 지녔던 것이 최근까지였으며, 또 실질이었

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개발 또는 국제개발협력은 물론 그 상위개념이 된다. 왜냐하면 (1) 신과학기술혁명의 영향으로 세계적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더 긴밀하게 되어 경제의 무국경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2) 지구환경 보존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간, 남북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3) 구소련, 동구, 북한 등에 대한 국제개발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적인 대상은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특히 후발 개발도상국이라고 보게 되었다.

선진국을 뜻하는 북측(The North)에서 왜 국제개발 또는 국제개발협력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1) 경제적 이유, 즉 유효수요효과, (2) 정치적 이유, 즉 평화 유지 및 안전 보장 효과, 민주주의, 인권 등, 그리고 (3) 국제적 상호의존관계상의 판단, 인도주의적·윤리적 이유 등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 근년의 일이지만 (4) 지구환경 보전 등의 지구적인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開發必要(DNs), 그리고 개발의 조건, 대상, 주체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하여 국제개발의 제국면에서 예컨대 경제개발, 사회개발, 정치개발, 문화개발, 국토개발, 도시개발, 농촌개발, 전달매체 즉 커뮤니케이션 개발, 과학기술개발, 교육개발, 환경개발 등이 두드러지게 되고 있다.⁽³⁾ 교육개발 그리고 사회개발과 밀접한 연계를 지니는 것이지만 근년에는 ‘人材養成’ 또는 ‘人間中心開發’(Human-Centered Development: HCD), 즉 ‘人間資源開發’(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을 점차 중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상 사업의 규모, 기간, 그리고 지리적인 범위면에서 볼 때에 최대의 것은 남북간의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개발협력은 남북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의 본격적인 전개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다.⁽⁴⁾ 1990년대의 개발협력전략으로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세 가지의 기본방침을 내놓고 있다[OECD(1989)]. 즉 (1) 다면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의하여 자립 발전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여 갈 것, (2)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개방된 과정에 참가시키는 “參加型 開發”(participatory-type development)⁽⁵⁾과 그 성과의 보다 공평한 분

(3) 경제개발 즉 경제적 복지의 향상을 위한 개발은 1인당 실질 GNP의 증대, 안정, 균등 등으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개발은 직접적인 경제활동 이외의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근대화를 위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의 개선을 위한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다.

(4) 국제 개발 협력적인 남북문제의 역사는 1961년부터 배태·본격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의 조감은 본고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대로 부분적으로나마 살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5) 근래에 이르러 ‘參與的 民主主義’(Participatory Democracy)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으나 미국의

배, 그리고 (3)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적 개발과 높은 인구 성장의 억제 등이다. 한편 세계은행도 국제개발협력의 중점적 전략으로서 (1) 개발을 위한 인적 투자, (2) 개혁을 위한 환경조건 조성, (3) 시장의 자유화, 개척 등에 의한 세계경제와의 통합, (4) 거시적 경제운영기반의 확립, 그리고 (5) 정부의 개발계획 수립과 목표 달성 능력의 향상 등을 들고 있다(World Bank(1991)).

국제개발협력의 필요량은 개발도상국이 얼마만큼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UNCTAD(1992)는 1995-2000년 사이에 4.3%로 잡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라틴 아메리카가 3.3%, 아프리카가 3.7%, 아시아가 5.0%, 그리고 중국이 6.5%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선진국이 원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목표는 금액으로 GNP의 1%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0.7%는 政府開發資金(ODA)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 즉 “開發援助委員會”(DAC) 제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개발자금이 유입되는데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액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증대되고 있다. 개발협력자금, 즉 원조총액에서 차지하는 주요항목의 비중(1990/1991)을 보면 어떠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1) 사회적, 행정적 기반의 조성 및 확충에 23.1%, (2) 경제적 기반에 24.6%, (3) 농업에 9.5%, (4) 공업과 기타의 생산에 7.4%, (5) 식량원조에 1.9%, (6) 총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원조에 11.5% 그리고 (7) 기타에 22.0%를 지출하고 있다(OECD-DAC(1993)).

국제협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것이냐, 민간에 의한 것이냐 또는 2국간의 것이냐 다국가간의 것이냐를 우선 살필 수가 있다. 수단면에서 본다면, (1) 자본협력, (2) 기술협력, 그리고 (3) 무역협력 등이 주요할 것이고, 분야면에서 보면 (1) 경제개발, (2) 사회개발, (3) 정치개발, (4) 문화개발 등으로 나뉘볼 수가 있다. 그리고 ‘女性開發參與’(WID)를 위한 개발협력사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면적인 연관분야의 연관적 총합 또는 통합이 요청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의 참여는 1970년대 말경부터 급속한 증대를 보이고 있다. 1963년도 DAC 제국 ODA 총액의 6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불과 2.4%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데 비해, 1972년에는 미국이 17.5%로 하락한 반면 일본은 18.1%로 상승하여 이후 세계 제1위를 유지

W.A. Anderson이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였다. 오늘날에는 특히 실증적 또는 경험적 연구와의 연관에서 顧客(clients)과 더불어 ‘參與的研究’(Participatory Research: PR)가 널리 논의되어 결국은 ‘參與型 開發’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획의 ‘上行的 接近’(Bottom-up Planning Approach)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通産省(1992)].

4. 社會開發의인 國際開發協力

전달매체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혁명과 인간행동의 무국경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관계, 사회구조도 국제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며 사회개발의 국제화도 진전케 된다. 공업화, 산업화는 인간의 관심을 농촌개발로부터 도시개발로 이행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개발의 중점대상도 이동시키고 있다. 중핵도시의 국제화, 지구화는 도시의 사회개발을 국제화하고 있으며, 과밀도시의 제반문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 많다. 社會開發必要(SDNs)와 社會開發資源(SDRs)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개발의 N.R.關係⁽⁶⁾는 국제화된다. 또 마약문제, 에이즈문제, 테러문제 등은 국내대책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사회관계는 지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개발 필요(N)의 국제적 전개에 대하여 사회개발자원(R)에 있어서도 국제적 대응이 요청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개발필요는 매우 크고 뿌리도 깊으며 다양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선진국에 의한 개발협력 지원이 절실하다.

사회개발의 측면에서 국제협력개발의 중점적인 내용은 선진국 사이와 남북간에 크게 다르다. 남북협력, 즉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는 (1) 인재개발원조(HCDC 또는 HRD), (2) 사회개발 기반조성 개발협력, (3) BHN 원조 그리고 (4) NGOs를 포함하는 사회개발자원의 효율적인 조직화·기능화를 위한 원조 등이 주된 것이 된다. 사회개발기획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요인은 (1) 사회개발의 이상, 이념 및 목표 (2) 사회구조의 발전 단계와 추세의 고려, (3) 지방분권화, (4) 관료주의의 폐해 타파와 NGOs의 육성·활용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 참여, (5) 사회개발자원의 효율적인 취득과 활용 (6) 경제개발, 정치개발, 문화개발 등 다른 범주 또는 분야와의 연계 및 균형, (7) 학습효과, 관련정보의 교류, 전달매체 즉 커뮤니케이션의 적절한 발전, 그리고 (8) 기획능력, 기업가정신, 지도력, 협상능력, 사회적 동기, 유인 등이 될 것이다[Conyers(1988)].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는 상대국인 개발도상국의 사회나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요구되는데 이들의 이질성, 다시 말하면, 사회적 차이성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남북협력은 최대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GDP의 약 10%만이 사회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협

(6) 사회개발 필요와 사회개발 자원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경우도 그렇지만 기술혁신의 개발·활용등의 개발의 파라다임에서 일본의 齊藤 優교수는 "N.R.關係"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력에 충당되고 있을 따름인데[UNCRD(1988)], 199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새로이 사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가 증대되는 것은 經濟移行期の 동유럽 제국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에 있어서도 필요하며 중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세계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되는 국제사회개발협력 범주로 예컨대 (1) 하드웨어적인 전환의 경우는 자국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지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갈 것이며 (2) 정보화 사회에 의한 대도시의 지구화와 사회개발 기반의 국제화에 따라서 사회개발의 국제화 필요가 증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3) 마약이나 테러, 에이즈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연동하는 사회문제 또는 사회개발문제가 증대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관계국간의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와 같은 앞으로의 경향이 전통적으로 사회개발이 크게 뒤쳐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맺는 말

사회개발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선진국간 국제개발협력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국제개발협력에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經濟社會開發 = 國家開發’이라는 등식이 굳어져 있는 반면 예컨대 지나치게 이분적으로 보아왔던 농촌과 도시는 통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개발협력도 새로이 조명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제개발 없는 국가발전은 있을 수 없지만 사회개발 없는 경제개발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명제를 되씹어야 할 것이다. 상호보완적인 또는 상호보강적인 사회개발과 경제개발로서의 “經濟社會開發”이 필요한 오늘날일 것이다. BHN 원조에 의존하는 많은 후발 개발도상국일지라도 사회개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이루어져 오고 있고,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⁷⁾ 특히 ‘感情移入’(empathy)과 HDP(Humanistic-Democratic-Participatory)관리형⁽⁸⁾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7) 본고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총체적으로 개관한 것의 일부이므로 중복적인 기술은 생략하였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8) W.G. Bennis(Changing Organizations)와 A.D. Jedlicker(Organization for Rural Development)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개방체제 또는 개방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441-1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5

전화: (0331)291-1066

팩시: (0331)296-8823

參 考 文 獻

왕인근(1995): 『아프리카 농업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82-104.

通産省(Tsu-Sau-Sho)(1992): 『我カ國 經濟協力の現狀の問題點』, 東京, 日本.

Conyers, Diana(1988): “Planning of Local Social Development: Lessons of Experience,”
UNC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cial Development.

Hobhouse, L.T.(1924): *Social Development: Its Nature and Conditions*, George Allen &
Unwin Ltd.

Morrice, Robert(1988): “Changing Patterns of Public Welfare: Policy in Nine Countries
1975-1986,” *Testing the Limits of Social Welfare*, The Trustees of Brandeis University.

OECD(1989):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Paris.

OECD-DAC(1993): *Development Cooperation 1993*.

UNCRD(1988): *Local Social Development Planning*, Vol. 1, Module 1.

UNCTAD(1992):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1992*, United Nations.

World Bank(1991):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彙 報〉

1. 吳星煥 부교수는 본 연구소 연구부장으로 임명되었다(1月 18日).
2. 錢英燮 부교수는 본 연구소 발간부장으로 임명되었다(1月 18日).
3. 柳根寬 조교수는 본 연구소 자료부장으로 임명되었다(1月 18日).
4. 농업생명과학대학 金浩卓 학장(전국 농학계대학장 협의회장)은 서울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21세기를 대비한 농학계대학의 구조조정”을 주제로 전국 농학계대학교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2月 8日).
5. 鄭雲燦 교수는 『예금보험론』을 출간하였다(2月 25日).
6. 崔宰弼 부교수는 경제학부 부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3月 1日).
7. 본 연구소는 1/4분기 중 다음과 같이 주례발표회를 가졌다.
 - 李承勳 교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이해(3月 10日).
 - 류일호 박사(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재정의 현황과 과제(3月 17日).
 - 서근우 박사(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3月 24日).